

북한 농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최 장 원(목사, 충북 제천 적곡교회)

1.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북한에 있어서 농촌의 위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룬 지역자립적인 북한의 고유한 행정구조로¹⁾ 인하여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연계를 시도함으로써²⁾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막강한 것이 북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저하, 수해로 인한 농업기반의 파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의 결여 등은 북한농업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현재적 사회구조상 북한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농민들이 도시

1)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연구총서 99-12, (서울: 통일연구원, 1999), 52.

2) 김춘성,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실현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4.

로 진출하여 도시 노동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탈북자가 발생하는 한 이유가 조성되는 것이며, 이는 곧 선교적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북한의 농촌선교를 위한 농촌개발과 이를 통한 선교적 기반의 조성은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전략에 있어서 필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농촌의 이해

1) 북한 농촌의 변화상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한과 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남과 북은 모두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접어들고 있었다. 북한에 있어서는 소련이 대일침전을 선언하고 8월 14일에 청진과 나남에 소련군이 상륙하고, 16일에는 원산에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점령에 대한 우려로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의 분할 점령에 대하여 소련측에 제의하였고, 소련이 이에 수긍함으로써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었다.³⁾ 이로 인하여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사회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북한에 있어서 소련의 지원 아래 시작된 사회주의적 발전은 북한의 농촌에 있어서 토지개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 사실 토지개혁의 요구는 일제치하의 민족해방운동과 결부되어 이루어진 사회주의세력이 이끄는 농민운동의 대안적 강령으로 제시되었다.⁵⁾ 이러한 논의는 해방 후 북한에 있어서 토지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의 영향으로 남한은 물론 제3세계의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⁶⁾ 북한은 1946년 3월 5일

3)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1권, (서울: 돌베개, 2002), 42-43.

4)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1), 134.

5) Ibid., 68-69.

6) 김주환, “해방 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일본인과 친일파, 소작을 주는 지주, 사원 및 종교단체 등의 토지몰수와 고용노동자, 토지가 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 등에게 토지를 분배하였다.⁷⁾ 또한 지주들의 농민에 대한 부채를 취소하고, 모든 관계시설과 산림은 국유화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하였다.⁸⁾ 이로써 북한은 농지면적의 약 56%에 달하는 98만여 정보를 몰수하고, 이중 93만 정보를 분배하였다.⁹⁾ 이는 농촌 인구의 70% 이상, 북한 총인구의 50% 이상에게 혜택을 준 파격적이고도 대대적인 개혁이었다.¹⁰⁾ 이로 인하여 북한은 분배된 농지를 농민들이 사유화하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작소농제로의 토지개혁을 완수하게 된다.¹¹⁾

그러나 남북간에 이루어진 한국전쟁을 기화로 북한지역에서는 농업협동화를 이루게 된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정된 수순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 농기구와 비료의 부족, 관개시설의 파괴 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의 협동화를 촉진하게 된 것이다.¹²⁾ 게다가 품앗이, 두레 등 전통적인 협동노동에 익숙해 있던 농민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의 협동화는 급속도로 추진되었다.¹³⁾ 1954년부터 추진된 농업의 협동화는 노동당의 적극적인 '지도'로 인하여 4년만인 1958년 8월에 사회주의적 협동농장으로 완성되었다.¹⁴⁾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주요 생산도구의 유상통합과 토지 소유권을 보존하는 방침을 끝까지

『해방전후사의 인식 5』(서울: 한길사, 1989), 298.

7) Ibid., 287.

8) Ibid., 140.

9) 권태진,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 『농촌과 목회』 2003년 봄호, (농촌과목회 편집위원회, 2003), 200.

10) 박세길, 86.

11) 김성보, 150.

12)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권, (서울: 돌베개, 2002), 44.

13) Ibid., 47; 김성보, 305.

14) 김완배 편, 『북한농업연구백서』(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57.

고수하여 마침내 협동화가 완성되는 1958년에서야 비로소 국가소유의 농업협동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¹⁵⁾ 개인의 이윤동기를 무시한 무리한 협동화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농업협동화는 농업생산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일정한 결함을 나타내게 된다. 작업분조의 독립성이 약함으로 노동력의 낭비가 발생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으며, 노동력 투입을 평가하기 곤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1966년 작업분조를 생산의 기본 단위로 하고, 분조의 생산실적에 따라서 연말분배를 실시하는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게 된다.¹⁶⁾ 이로써 북한농업의 체제는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화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2) 북한 농촌의 현 실태.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농업협동화로 인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원활한 식량의 공급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북한은 밭 관개의 완성, 토지정리 및 개량, 다락밭 건설, 치산치수, 간척지 개발 등의 '자연개조 5대 방침'과 20만 정보 새땅찾기, 30만 정보 간척지 개간, 태천발전소 건설, 서해감문 건설 등의 '장기적인 4대 자연개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¹⁷⁾ 그러나 집단화의 지속으로 인한 농민들의 근로의욕 감소와 경기 침체 및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한 농업 부분의 투자부진 등으로 인하여 농업 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 후반에는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원조 및 교역 중단으로 본격적인 침체현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김일성의 죽음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¹⁸⁾

15) 김성보, 317.

16) 김완배, 62.

17) Ibid., 66.

18) Ibid., 1.

이에 당황한 북한당국은 급기야 1996년 분조관리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분조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나름대로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새로운 분조계약제는 분조 규모의 축소, 생산 목표량의 하향 조정, 초과 생산물의 분배 등을 골자로 한 개혁적 조치이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생산의욕은 고취되었으나 실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게 되자,²⁰⁾ 1998년 제10기 제1차 최고 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 헌법에서 사회협동단체도 농기계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농민들의 가족사육 및 거래를 인정하였으며, 누구든 텃밭을 개간할 수 있게 하였다.²¹⁾ 이는 집단농장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법적 근거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량의 국가수매분을 줄이고, 농민시장에 팔 수 있는 개인 판매 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목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영농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²²⁾ 결국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적 조치들을 통해 식량생산량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농촌선교를 통한 북한선교 전략

1) 현 시기 북한농촌선교의 전략적 범위

현 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선교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여건에 놓여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 시기 북한선교의 전략적 큰 축은 간접적이고 비공개적인 선교방법을 이루어야 한다. 그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굳게 닫힌 북한사회를 열기 위한 빗장열기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동안 북한사회는 베일에 쌓인 모습으로 그나마 조그마한 틈

19) 최수영, 『북한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연구총서 02-20, (서울: 통일연구원, 2002), 9; 권태진 205.

20) Ibid., 79.

21) Ibid., 12.

22) 권태진, 206.

이 열린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북한사회는 근접하기 어려운 곳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사회의 주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인하여 마음의 빗장이 굳게 닫힌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의 단순화된 마음의 빗장을 여는데 이 시기 북한선교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50여 년에 걸친 기독교에 대한 반(反)종교정책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순종을 설교 하면서, 피착취자들을 자기들의 해방을 위한 혁명적 계급 투쟁으로부터 리탈시킨다.”고²³⁾ 배워 왔고, 선교사를 “기독교 전도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 종교의 탈을 쓰고 침략의 앞잡이로 복무한다.”고²⁴⁾ 인식하여 옴으로써 반혁명적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게다가 종교화된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종교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더욱 드센 상태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전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종교의 탈을 쓴 이리’로써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로써의 모습으로 다가감으로 인하여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선교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복음에 앞서서 빵을 전달해야 한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선불리 복음을 증거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빵을 제공하여 굶을 통하여 복음전도의 토양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행히 북한은 집단화로 인한 근로의욕의 상실과 노동생산성의 저하, 연이은 수해와 기근 등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고²⁵⁾, 이로 인한 대규모의 아사자들과 체제 이탈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²⁶⁾. 결국 이들은 자존심을 꺾고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²⁷⁾, 계속하여 남한과 해외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23) 『조선말사전』 언어문학연구소 사전 연구실 편,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기독교” 항목.

24) 『조선말사전』 언어문학연구소 사전 연구실 편,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선교사” 항목.

25) 김완배 편, 1.

26) 윤여상, 『재외탈북자』 (서울: 열린포럼21, 2001), 43.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일반 사회단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던 형식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경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등의 단체들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²⁸⁾ 네비우스 선교정책에도 “민중의 경제문제에서 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도움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⁹⁾ 이러한 때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빵을 전달함으로 복음전도의 토양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지위와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종교적 활동의 합법성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가정예배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³⁰⁾ 국수공장, 빵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다.³¹⁾ 결국 좀더 자유로운 종교적 지평이 넓혀지기 위하여 빵을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셋째는 간접적인 선교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선교의 목적은 예수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술적 방법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가 있다. 현 시기 북한선교를 위한 방법에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 속에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27) 북한은 1995년 수해 이후 ‘유엔인도지원국(UNDHA)’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연구보고서 97-1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1.)

28) 김병로, “남북 기독교 교류의 실태와 전망”, 『남북나눔 10년과 한국교회의 과제』 남북나눔 10주년 세미나자료집(서울: 남북나눔운동, 2003), 65.

29) 박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김춘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45.

30) 송병구, “잃어버린 사도행전을 찾아”, 『성실문화』 32호, (서울: 성실문화, 2002), 97.

31) Ibid., 95.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추진되는 직접선교 방식은 선교의 문을 막게 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참고 기다리며 준비하되 그들과의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접적 선교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각종의 문화적 교류와 사회봉사 등은 북한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북한 농촌선교의 접촉점

현 시기의 북한선교가 비록 간접적이라 할찌라도 그 선교적 교두보는 마련되어야 하고, 그를 통하여 접촉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의 농촌을 선교하기 위한 접촉점 역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 접촉점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농업공동체적 접근방식이다

북한 사회는 집단적 방식에 익숙하여 있다. 왜냐하면 농업협동화로 인하여 모든 노동과 생활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농촌선교 역시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접근방식이 시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농업공동체적 접근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³²⁾ 북한은 19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 회의에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실현을 사회주의의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제시하고 농업과 지방공업, 외화벌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³³⁾ 그러므로 북한에 합영농장을 건설하여³⁴⁾ 생산된 농산물들을 남한의 교회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남북직거래를 통하여 그들에게는 외화벌이를, 우리에게는 선교적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서로에게 유익한 노력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주기 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

32) 안부섭, 『통일과 북한선교전략』 (서울: 베드로서원, 1991), 226.

33) 김병로, 45.

34) 최수영, 67.

친다고 한다. 그러기에 북한선교를 위한 농업공동체적 접근방식은 소비적 물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노동하여 이익을 창출한다는 보람과 시장경제의 학습도 가능할 것이며, 남쪽의 교회들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선교적 접촉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봉사센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체제에 있어서 균열된 북한의 농촌사회를 회복하고 북한의 주민들을 이끌기 위하여 제반의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적 접근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전도와 사회봉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행되어 왔다. 심지어는 전도를 강조한 소 안론(W. L. Swallen), 마포 삼열(S. A. Moffett), 한 위럼(W. B. Hunt) 등의 선교사들도 각각 사과, 농장, 낙농 등의 기술지도를 통한 사회봉사를 병행하였다.³⁵⁾ 그러기에 북한의 농민들에게 신기술과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며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며³⁶⁾, 방과후에 어린아이들을 보살피 주며, 여성들에게는 홈패션과 요리법 등을 가르치고, 시장경제체제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겪게 될 혼란한 심리상태에 대한 상담 등 사회봉사센터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격적 우의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³⁷⁾ 왜냐하면 선교사는 침입인, 이방인으로 비쳐지기 쉽기 때문이다.³⁸⁾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갖가지 사회적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한농촌의 주민들과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신뢰관계를 회복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봉사센

35)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7), 294.

36) 박진우,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아·태국제신학대학원, 2001), 56.

37) 헤셀 그레이브, 『선교커뮤니케이션』 채은수 편역, (서울: 한국로고스선교원, 1998), 93.

38) Ibid., 78.

터 역시 꼭 필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3) 북한의 농촌지역에 무료진료소를 설치하는 것도 큰 접촉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선언하였으나 의료수준의 저하와 첨단장비의 부족으로 동의학을 통한 진료에 의존하고 있고³⁹⁾, 약품의 부족으로 항생제의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⁴⁰⁾ 그것도 경제위기 이후에는 구하기가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⁴¹⁾ 북한의 일반적인 상황이 이러하든 농촌의 사정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농촌지역에 진료시설을 설치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다가선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릴 것이다.

일찍이 예수님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셨다.⁴²⁾ 한국교회 초창기의 선교역사에 있어서도 알렌을 통한 의료진료가 복음의 문을 열 정도로 큰 역할을 차지하였고, 장로교 선교부의 경우에 두 사람의 전도자와 한 사람의 의사를 보내어 새로운 거점을 개척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었다.⁴³⁾ 그러기에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선교사역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한 탈북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⁴⁴⁾ 또한 비록 중국의 경우이지만 중국의 단둥시의 경우 3년 간 지속된 온누리교회의

39) 『PASCAL 세계대백과사전』(서울: 동서문화, 1997), “북한” 항목.

40) 노베르트 폴러첸, 『미친 곳에서 쓴 일기』 김주일 역, (서울: 월간조선사, 2001), 172.

41) Ibid., 70.

42) 김성자, “농촌복음화를 위한 총체적 치유선교 전략”,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4), 40-43.

43) 광안련, 249.

44) 북한이탈주민 민00와의 대담, 십자수기도원, 2003년 9월 29일. (1997년에 북한을 이탈한 민00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북한선교학과 MT에서 대화한 내용이다.)

의료진료사역으로 인하여 한인교회를 공식적으로 허가하여 인정한 사례도 있다.⁴⁵⁾ 북한이 결국 중국의 모델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큰 시사점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결국 북한의 농촌지역에 의료진료를 통한 선교의 접촉점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3) 북한 농촌선교의 전망

198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북한의 내적 모순으로 인한 체제의 위기는 1990년대에 최고조에 달하여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⁴⁶⁾ 그리하여 북한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개혁과 개방을 이루어오고 있다. 북한이 좀 더 개방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볼 때 자칫 성급한 접근은 오히려 선교의 문을 닫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박성열은 『북한 농촌·농업실태와 인력자원개발 시스템을 통한 북한 농민의 구호방안』이란 책에서 북한 농촌개발 모델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⁴⁷⁾

① 집단농촌형 농촌지역사회개발 모델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비를 이룸으로 개인소유가 없고, 모든 이익이 집단농촌에 환원되는 공동체적 모델이다.

② 협동농촌형 농촌지역사회개발 모델

개인소유, 개인생산, 공동판매를 이루는 모델이다.

45) 김영철 목사와의 대담, 중국 단둥 한인교회, 2002년 11월 7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북한선교학과 Field Trip에서 대화한 내용이다.)

46) 김병철, “북한농업생산기반의 실태와 단계적 협력방안”, 『농민과 사회』 통권 31호, (서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2), 72.

47) 박성열, 『북한 농촌·농업실태와 인력자원개발 시스템을 통한 북한 농민의 구호방안』(서울: 집문당, 2002), 73-78.

③ 집단협동 농촌형 농촌지역사회개발 모델

공동생산, 공동판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및 분배의 사유화를 이루는 영농조합과 같은 모델이다.

④ 완전개인 농촌형 농촌지역사회개발 모델

개인소유, 개인생산, 개인판매의 남한형 개인가족형 모델이다.

⑤ 회사영농법인 농촌형 농촌지역사회개발 모델

법인소유, 법인 생산, 법인판매이고 농민은 고용된 농업노동자가 되는 모델이다.

이 다섯 가지의 가상 모델은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네 번째의 모델을 제외하면 집단적 형태를 유지하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북한사회체제가 일거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개방화 정도에 따라서 위의 모델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 농촌의 선교전략 역시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공동체적 선교적 전략은 농촌사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개인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들의 노동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남한에 판매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적응은 물론 주체사상으로 상실된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 남한의 교회와 선교사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거부감과 반종교 선전의 잔재들을 털어 버리고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으로써의 진정한 교회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북한복음화와 북한교회재건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농촌사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나 농촌은 도시에 비하

여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한의 농촌 역시 도시에 비하여 제반의 여건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의 농촌에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인 동시에 이를 통하여 농촌사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농촌선교 사로써의 농촌목회자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도·농직거래, 농촌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지역사회운동, 나눔과 섬김의 생활공동체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일련의 노력은 열악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는 선교적 견인차가 되고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진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식량난을 초래한 농촌사회의 위기를 통하여 전면화 되었다. “쌀은 공산주의”⁴⁸⁾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촌은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열악한 북한 농촌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의 농촌사회는 그만큼 밝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의 현재적 여건상 북한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다행히 북한은 경제난 이후 그 타개책으로 개혁과 개방을 조심스레 타진하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그 모습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개성공단을 착공하여 개혁과 개방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꽤나 고무적인 사실이다.⁴⁹⁾ 이로 미루어보건대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곧 합영농장이나 위탁재배 및 직접투자 등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때 한국교회는 북한의 농촌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하루아침에 불쑥 이루어질 수 없듯이 북한선교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담당할 선교인력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교회의 과도한 목회자 양산에 대하여 북한만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준비 없는 대안은

48) 김병철, 76.

49)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창설 운용규정을 발표하여 투자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척호, “북, 개성공단 개발, 기업창설 운용규정 발표”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3062802800+20030628+1927\(2003, 11, 22\)](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3062802800+20030628+1927(2003, 11, 22))>

이미 대안이 아니다. 준비 없는 대안은 시행착오는 물론 심각한 기회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북한의 농촌을 위한 선교적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교회 농촌선교의 축적된 선교경험을 살려서 북한의 농촌선교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인력의 발굴 및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효율적인 북한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農